

2003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발로 뛰며 일선 학교현장을 누비다!

글 □ 서정원(대한결핵협회 홍보과)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률, 이는 국민건강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흡연중인 학생들을 금연으로 이끌기 위해 대한결핵협회는 2001년부터 매년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03년에는 전국 271개 학교 18만 1,466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2003년 진행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 실태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실시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2001년도부터 매년 협회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학교 보건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흡연단계 이전의 조기 흡연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여 동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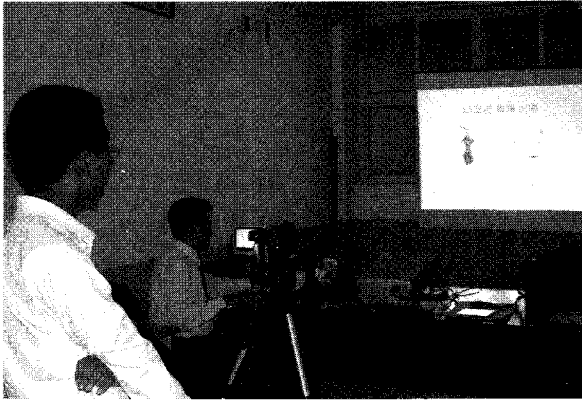
일선 학교순회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로 해당 학교와 사전 협의 후 교육일정을 정하고 1시간(45분) 동안 교내 방송실에서 강의장면이 각 교실 모니터로 방영되어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청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및 동영상 자료 활용 교육

단국대학교병원 금연클리닉(담당 정유석 교수)과 공동으로 교육사업과 내용을 수립 진행하여 학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교육자료와 교재를 시청각자료(마이크로소프트사, 프레젠테이션용 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로 제작)인 '교육용 CD'와 CD-Title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한 '흡연예방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사용 교재'를 사전에 개발·제작하였다. 교육자료의 주요 내용은 흡연의 여러 폐해에 대한 설명 등의 사진들과 동영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시·도 지부 담당강사들을 사전 교육하여 전문 흡연예방교육 강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와 LCD 프로젝터 등 최신의 장비를 구입 보강한 2003년도 순회교육은 전국 271개 학교 18만 1,466명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흡연 금연관련 실태에 관한 표본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각 시·도 지부별로 2개 학교(학년별로 1개 학급) 총 2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학생 흡연율 3.9%

동 표본 설문조사 학생 2,735명과 교사 6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 중학생 및 교사 흡연 금연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단국대의대 금연클리닉



본회 흡연예방교육을 담당자들이 학교 방송실에서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유석교수) 14세에서 16세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4.6%, 여자 중학생은 3.1%를, 우리나라 중학생 흡연율은 총 3.9%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때, 여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첫 흡연장소는 남녀 학생 모두 집에서 피운 경우가 많았고, 흡연 동기 또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흡연예방교육 이룰 수록 좋아

동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적이며, 부모님의 올바른 가정교육과 금연지도가 청소년들의 흡

연예방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노래방에서 첫 흡연을 시작한 학생이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놀라운 사실은 흡연하는 남학생의 12.1%와 여학생의 3.1%가 하루 한 갑 이상을 흡연하고 있다는 점이며, 담배는 주로 동네 슈퍼마켓(58.7%)과 24시간 편의점(9.3%)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구입 당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학생이 50.6%에 달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조치가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법과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매년 흡연예방교육이 종료되면 금연강사 워크샵이 개최된다. 사진은 2008년 워크샵 개최 모습



단발적인 금연교육 문제점으로 지적

한편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남자교사들의 42.9%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내 전면 금연구역 선포에 대해서 남자 교사들의 60.9%, 그리고 흡연하는 교사들의 80.0%가 별도 흡연구역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 금연보다 여전히 심리적으 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을 알 수가 있었다.

교사들이 지적한 현행 학교 금연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발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한결핵협회 금연사업 활발히 펼칠 터

대한결핵협회는 우리나라의 결핵퇴치를 위한 고유 목적사업과 함께 같은 호흡기질환으로서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사업과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흡연예방교육 역시 국내 유일의 학교방문 순회교육 출장기관으로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업계획과 교육내용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교육문의 대한결핵협회 홍보과, 02-2636-5272~3)